

기출 참고: 2022 년 4 월 고 3 23 번 | 문제·지문 변형

0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religious painting can invite quiet contemplation, or it can make viewers feel caught inside an unfolding crisis. The second experience became especially important to Baroque painters working amid the religious tensions that followed the Reformation. Rather than treating sacred figures primarily as distant examples of ideal beauty, these artists brought their suffering, movement, and emotional intensity into the viewer's immediate world. A sharply lit face against surrounding darkness could direct attention toward a moment of spiritual conflict. Bodies arranged along forceful diagonals could make the scene seem unstable rather than calmly complete. Such devices were not simply decorative experiments unrelated to the subject. They provided a visual response to a Europe in which religious authority and belief had become deeply contested. The balanced perfection associated with earlier artistic ideals could no longer serve every expressive purpose. Viewers were invited to respond, not merely to admire. By placing dramatic action and powerful feeling at the center of religious representation, Baroque painting turned the disturbances of its historical setting into a distinctive way of seeing sacred experience.

- ① the influence of religious conflict on Baroque visual expression
- ② the use of Baroque paintings to restore classical artistic rules
- ③ the replacement of religious subjects by ordinary life in Baroque art
- ④ the success of Baroque artists in ending European religious disputes
- ⑤ the separ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from Baroque religious imagery

기출 참고: 2025 년 5 월 고 3 24 번 | 문제·지문 변형

0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uppose a museum arranged Earth's past so that the space devoted to each period reflected how long it lasted. A visitor interested mainly in human affairs might find much of the building personally uninviting. The temptation would be to confuse that lack of personal connection with a lack of importance. Yet an interval does not become insignificant merely because its events contain nobody we recognize. Our habits of attention can conceal this distinction. We may carefully place familiar societies in sequence while treating the immense periods before them as an undifferentiated background. Knowing a few labels for that background does not tell us how its different parts compare in duration or how quickly changes occurred within them. Such knowledge supplies names without a usable scale. Human pride can encourage this narrow focus, while discomfort with our brief place in the larger story can make it easier to maintain. The resulting ignorance need not look like ignorance to people who share it. A remote event may attract attention for a moment without altering their understanding of time. Earth's history then becomes a stage prepared for our arrival, rather than a vast succession of processes whose proportions matter independently of us. This is how human relevance can displace temporal understanding.

- ① Human History as a Reliable Measure of Earth's Past
- ② Why Detailed Historical Labels Reveal the Length of Every Era
- ③ When Human Relevance Distorts Our Sense of Planetary Time
- ④ How Existential Discomfort Expands Our Interest in Natural History
- ⑤ Why Museums Should Give Human Events Most of Their Space

정답 및 해설

기출 참고: 2022 년 4 월 고 3 23 번 | 문제·지문 변형

01 번 | 주제

정답 ①

소재	종교적 변화와 바로크 종교화의 표현 방식
주제	종교 개혁 이후의 긴장과 혼란은 바로크 회화가 이상적 균형보다 극적 움직임, 명암 대비, 강렬한 감정을 강조하는 데 반영되었다.
핵심 키워드	religious tensions(종교적 긴장) · emotional intensity(감정의 강렬함) · diagonals(대각선) · visual response(시각적 반응) · dramatic action(극적인 행동)

쉽게 이해하기

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크 그림의 화려함 자체가 아닙니다. 종교적 긴장이라는 시대 상황이 왜 강렬한 감정과 극적인 화면 구성으로 이어졌는지를 연결해 읽으면 됩니다.

관련 학자·소재 이론 쉽게 이해하기

미술에서 ‘형식’은 무엇을 그렸는지가 아니라, 선·빛·색·인물의 배치를 통해 그것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를 뜻합니다. 이해를 위한 예로 같은 종교적 사건을 그려도 인물을 차분히 정렬한 화면과 몸의 움직임이 교차하는 화면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두 그림의 표현 방식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관점으로 미술사학자 하인리히 뵐플린의 형식 비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미술사의 기초개념』(1915)에서 ‘선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 ‘단한 형식과 열린 형식’ 같은 개념쌍을 사용하여 양식의 차이를 살렸습니다. 이는 작품의 줄거리만 요약하지 않고, 화면을 보는 방식과 구성의 차이를 비교하도록 돕는 접근입니다.

이 관점으로 지문의 밝은 얼굴과 어두운 배경, 강한 대각선 구도를 보면 각각이 관람자의 주위와 감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문은 형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극적인 표현을 종교 개혁 이후의 긴장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연결합니다.

배경 참고 [01]: H. Wölfflin, Principles of Art History (1915; Getty 영문판 2015).

정답해설

핵심은 종교적 긴장이 바로크 회화의 표현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글은 먼저 고요한 관조와 위기 속에 참여하는 듯한 경험을 대조한 뒤, 강렬한 명암과 대각선 구도가 종교적 갈등을 시각화한다고 설명한다. “a visual response to a Europe in which religious authority and belief had become deeply contested”는 미술적 장치와 종교적 상황의 관계를 직접 연결한다. 따라서 종교 갈등이 바로크의 시각적 표현에 미친 영향을 포괄하는 ①이 정답이다.

- ② 이전의 균형과 완벽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표현 방식을 바꾸었다. 고전 규칙의 복원이 아니다.
- ③ 종교적 소재 자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인물과 경험을 묘사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
- ④ 그림이 종교적 혼란에 반응했다는 설명을, 실제 분쟁을 종식했다는 성과로 확대한다.
- ⑤ 종교적 표현의 중심에 강렬한 감정을 놓았으므로 감정의 분리와는 반대이다.

선택지해석

- ① 종교적 갈등이 바로크의 시각적 표현에 미친 영향

- ② 고전적 미술 규칙을 복원하기 위한 바로크 회화의 활용
- ③ 바로크 미술에서 종교적 소재를 일상생활로 대체한 것
- ④ 유럽의 종교 분쟁을 종식한 바로크 예술가들의 성공
- ⑤ 바로크의 종교적 이미지에서 감정 표현을 분리한 것

전문해석

종교화는 고요한 관조로 이끌 수도 있고, 감상자가 전개 중인 위기 속에 휘말린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두 번째 경험은 종교 개혁 이후의 종교적 긴장 속에서 작업한 바로크 화가들에게 특히 중요해졌다. 이 예술가들은 성스러운 인물들을 주로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동떨어진 본보기로 다루기보다, 그들의 고통과 움직임, 강렬한 감정을 감상자가 바로 경험하는 세계로 가져왔다. 주변의 어둠과 대비되어 밝게 빛나는 얼굴은 영적 갈등의 순간으로 주의를 이끌 수 있었다. 강한 대각선을 따라 배치된 신체는 장면을 고요하게 완결된 모습보다는 불안정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장치는 소재와 무관한 단순한 장식적 실험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종교적 권위와 믿음이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된 유럽에 대한 시각적 반응을 제공했다.** 이전의 미술적 이상과 관련된 균형 잡힌 완벽성은 더 이상 모든 표현 목적에 부응할 수 없었다. 감상자들은 단순히 감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응하도록 이끌렸다. **바로크 회화는 종교적 재현의 중심에 극적인 행동과 강렬한 감정을 배치함으로써, 그 역사적 배경의 혼란을 성스러운 경험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으로 바꾸었다.**

단어·속어 정리

영어 표현	품사·형태	문맥상 뜻
contemplation	명사	관조, 깊이 바라보며 생각함
unfolding	분사형	전개되는
crisis	명사	위기
amid	전치사	~의 한가운데에서
tensions	명사	긴장, 갈등
Reformation	명사	종교 개혁
sacred	형용사	성스러운
primarily	부사	주로
intensity	명사	강렬함
spiritual	형용사	영적인
forceful	형용사	강한 인상을 주는
diagonals	명사	대각선
unstable	형용사	불안정한
decorative	형용사	장식적인
contested	분사형	논쟁의 대상이 된
representation	명사	재현, 표현
rather than	구문	~하기보다
become deeply contested	구문	심각한 논쟁의 대상이 되다
serve every expressive purpose	구문	모든 표현 목적에 부응하다
turn A into B	구문	A 를 B 로 바꾸다

기출 참고: 2025 년 5 월 고 3 24 번 | 문제·지문 변형

02 번 | 제목

정답 ③

소재	인간 중심의 관심과 지구의 시간 규모에 대한 무지
주제	인간과의 관련성을 중요성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인간 이전의 과거를 피상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지구 역사의 기간과 변화 속도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핵심 키워드	human affairs(인간사) · undifferentiated background(구별되지 않는 배경) · usable scale(활용할 수 있는 척도) · human relevance(인간과의 관련성) · temporal understanding(시간에 대한 이해)

관련 학자·소재 이론 쉽게 이해하기

지질학적 시간을 이해하려면 사건의 순서뿐 아니라 각각의 기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알아야 합니다. 시대 이름을 많이 외우더라도 두 시대의 길이나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속도를 비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라는 하나의 말로 긴 과거를 뭉뚱그리면, 서로 다른 시간 규모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학자인 제임스 허턴은 「지구의 이론」(1788)에서 암석이 쌓여 없어지고 그 물질이 쌓인 뒤 다시 육지가 되는 반복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에든버러 왕립학회는 이런 관찰과 추론이 인간의 일상적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지질학적 시간의 이해와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허턴이 오늘날의 지구 나이를 정확한 숫자로 계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배경을 알고 지문의 가상 박물관을 보면, 전시 공간의 크기는 인간에게 친숙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지속 기간을 나타낸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시기가 낯설다고 해서 짧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문이 비판하는 것은 과거의 명칭을 모르는 일만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관심 때문에 시간의 비율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배경 참고 [02]: J. Hutton, Theory of the Earth (1788); 에든버러 왕립학회, The legacy of James Hutton.

정답해설

인간과의 관련성을 중요성의 기준으로 삼으면 인간 이전의 방대한 시간은 구별되지 않는 배경이 되고, 그 이름만 알아도 이해한 것으로 여기기 쉽다는 논지이다. 박물관은 이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다. “Such knowledge supplies names without a usable scale”은 명칭을 아는 것과 기간·변화 속도의 규모를 이해하는 것이 다름을 보여 준다. 마지막의 “human relevance can displace temporal understanding”에 따라, 인간 중심의 관심이 지구의 시간에 대한 감각을 왜곡한다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 ① 친숙한 인간사를 기준으로 거대한 과거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인류 역사를 지구 과거의 믿을 만한 척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명칭을 아는 것만으로는 서로 다른 기간의 길이나 변화 속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름이 시간 척도를 제공한다는 선택지는 그 구별을 지운다.
- ④ 우리의 짧은 존재에 대한 불편함은 좁은 관심을 유지하기 쉽게 만든다. 자연사에 대한 관심을 확장한다는 인과는 본문과 반대이다.
- ⑤ 박물관은 시간의 규모와 인간의 관심이 어긋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가상 사례이다. 전시 공간 대부분을 인간사에 할애하라는 운영상의 권고가 아니다.

선택지해석

- ① 지구의 과거를 재는 믿을 만한 척도로서의 인류 역사

- ② 상세한 역사적 명칭이 모든 시대의 길이를 드러내는 이유
- ③ 인간과의 관련성이 지구의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왜곡할 때
- ④ 실존적 불편함이 자연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확장하는 방식
- ⑤ 박물관이 전시 공간 대부분을 인간의 사건들에 할애해야 하는 이유

전문해설

지구의 과거를 전시하면서 각 시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비례하여 전시 공간을 배분하는 박물관을 가정해 보자. 주로 인간사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은 그 건물의 많은 부분이 자신에게 별다른 흥미를 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혼동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안의 사건들에 우리가 알아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기간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주의 습관은 이러한 구별을 가릴 수 있다. 우리는 친숙한 사회들을 주의 깊게 시간 순서대로 배치하면서도, 그 사회들 이전의 거대한 기간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배경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그 배경의 몇 가지 명칭을 안다고 해서 각 부분의 지속 기간이 서로 어떠한 비율을 이루는지, 또는 그 안에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식은 활용할 수 있는 척도 없이 이름만 제공한다. 인간의 자부심은 이런 좁은 관심을 부추길 수 있고,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짧다는 데서 오는 불편함은 그 관심을 유지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생기는 무지는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무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먼 과거의 사건이 시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바꾸지 않은 채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다. 그러면 지구의 역사는 그 규모상의 비율이 인간과 무관하게도 중요성을 지니는 광대한 과정들의 연속이라기보다, 우리의 등장을 위해 마련된 무대가 된다. 이처럼 인간과의 관련성이 시간에 대한 이해를 밀어낼 수 있다.

단어·속어 정리

영어 표현	품사·형태	문맥상 뜻
devoted	분사형	할애된
reflected	동사형	반영했다
uninviting	형용사	흥미를 끌지 못하는
interval	명사	기간
insignificant	형용사	중요하지 않은
conceal	동사	가리다, 감추다
undifferentiated	형용사	구별되지 않은
duration	명사	지속 기간
scale	명사	척도, 규모
discomfort	명사	불편함
ignorance	명사	무지
remote	형용사	시간상으로 먼
succession	명사	연속
proportions	명사	규모상의 비율
temporal	형용사	시간의
become insignificant	구문	중요하지 않게 되다
in sequence	속어	순서대로
rather than	구문	~라기보다
independently of	속어	~와 무관하게
displace temporal understanding	구문	시간에 대한 이해를 밀어내다